

# “BTS 이야기, 전세계 청년들의 ‘시대정신’과 땔 수 없는 관계”

‘비온드 더 스토리’ 공동저자 강명석 위버스 매거진 편집장 인터뷰  
 “BTS 멤버들에게 미친 영향과 ‘시대에 미친 영향’ 두 가지 중심”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멤버들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출간한 오프셀 북 ‘비온드 더 스토리 : 텐 이어 레코드 오브 BTS(BEYOND THE STORY : 10-YEAR RECORD OF BTS)’는 ‘음화(音誦)’라는 말을 만들어 붙여도 과하지 않다.

화(誦)는 이야기다. 이야기는 긴 호흡의 믿음이다. 파편화될 수 있는 개별적 기억을 부서질 수 없는 원형으로 증언하는 행위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10년 간 K팝 역사 미담(未踏)의 영역을 헤치며 쌓아온 진리다. 그 증거들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인 RM(김남준)·진(김석진)·슈가(민윤기)·제이홉(정호석)·지민(박지민)·뷔(김태형)·정국(전정국)이 저자인 이 책에 녹아 있다.

물론 K팝 표정들을 모두 모은다고 K팝의 대표적 얼굴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K팝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진심은 독자적인 것이고, 그건 전체로 환원하기 힘들더라도 고유성이 된다. 곧 독립적 진실이자 겸손으로 직결된다. 방탄소년단의 행보, 멤버들 각자의 삶과 맞닿는다.

그래서 ‘비온드 더 스토리’는 ‘음화(音誦)’이기도 하다. 음화는 음악을 들으면 그림이 연상될 만큼 음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K팝 신(scene)뿐만 아니라 글로벌 음악계 판도를 바꿨고, 팬덤 ‘아미’와 함께 이전에 볼 수 없던 음악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비온드 더 스토리’는 공식적 관점이 아닌 통시적 관점의 K팝 인문서 또는 역사서가 된다.

이런 책의 특질을 위해서 K팝 역사를 잘 알고, 각종 현상에 대해 훑어볼 수 있는 성실한 기록자도 필요하다. 강명석 위버스 매거진 편집장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유다. 강 편집장은 K팝 아이돌 원형질로 통하는 세대와 아이돌부터 지금의 4세대 K팝까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중문화 평론가이기도 하다. 강 편집장은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는 전 세계 청

년들의 시대정신과 땔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 나는 일문일답.

**-3년 간 멤버들과 인터뷰를 해오면서 집필한 것으로 아는데, 책을 쓰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이에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왔고, 인터뷰의 대부분은 팬데믹 기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데믹 시기에 대한 부분도 넣어야 할지, 특히 방탄소년단이 팬데믹 기간 동안 ‘다이너마이트(Dynamite)’, ‘버터(Butter)’ 등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HOT) 100’ 1위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기에 책에 어느 시점까지 반영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 대중문화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 팬데믹 기간을 담기로 결정했고, 방탄소년단이 데뷔부터 팬데믹을 거쳐 그라미 시상식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담게 됐습니다.”

**-한국인 저자의 도서 중에선 처음으로 ‘더 뉴욕타임스 베스트 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 분들이 많이 읽으실 테니 번역을 고려해 각주를 비롯해 한국어 문장 등 여러 측면에서 신경도 많이 쓰셨을 거 같아요.**

“문장의 경우는 사실 번역을 해주신 모든 분들의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번역을 고려해 한국어 문장을 썼다기보다는 누가 읽어도 편하게 읽히도록 문장을 쓰는 데 주력한 쪽에 가깝습니다. 그 외 각주와 방탄소년단의 각종 자료를 볼 수 있는 QR 코드 등은 편집자인 김연주님의 아이디어와 주도로 진행된 것인데, 방탄소년단에 관해 누가 책을 읽어도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멤버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특성이 달라**

**인터뷰를 하거나 속마음 등을 꺼낼 때 각각 접근방식도 달랐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뷰 방식의 특성상 접근 방식이 달랐다고는 좀 더 편하게 대화하게 되는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면, 처음에는 인터뷰의 형식에 가깝게 진행되더라도 회차가 진행될수록 일반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편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처음부터 인터뷰에 대해 굉장히 편하게 접근하는 마인드이기도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편하게 일반적인 대화하듯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책은 방탄소년단 이야기로만 한정 짓기엔 다소 아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K팝의 전환점이 된 만큼 산업적인 부분이 녹아 있는 역사서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 K팝 스타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인문학서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디. 그런 부분도 혹시 고려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이 책을 처음 쓸 때부터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는 단지 이 팀만의 이야기로 한정 짓기에는 K-팝, 더 나아가 전 세계 청년들의 시대정신과도 땔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방탄소년단의 성장 과정 속에서 한 시대가 청년 문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음악 산업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변화해는지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완성하신 다음에 방탄소년단에 대해 또 다른 할말이 생겼을 거 같아요. 다 풀자면 얘기가 길어질 테니 혹시 짧게 축약할 하거나 힌트를 주신다면요.**

“방탄소년단은 이미 활동 10주년을 맞이했지만, 멤버들은 여전히 보여줄 것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멤버들의 솔로 활동도



로 또다시 입증했듯, 지금도 점점 더 음악적으로 넓고 깊은 스펙트럼을 만들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또한 더욱 기대됩니다.”

**-이 책을 완성하시고 대중문화를 다루는 글쟁이로서 대중문화나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론적인 부분보다 심정적인 변화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들을 보고 글을 써온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담담하게 바라본 입장이었다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꾸준히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거처온 시간에 대한 생각과 고민, 그리고 인터뷰가 진행되는 3년의 시간 동안에도 계속된 성장으로 인해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전보다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하던 멤버들 때문에 울컥했던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탄소년단, 방시혁 의장, 하이브가 음악으로서 대중문화를 고급 장르로 만들었다면 편집장님은 글로서 평론으로서 대중문화 장르에 품격 있는 시선을 부여했습니다. 대중문화, 특히 한국 대중문화와 K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

**가요? 그 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은 대중문화를 다루는 전문가인 편집장님께 어떤 생각과 고민을 했나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중문화를 통해 한 시대는 물론 자신의 개인적인 추억까지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문화는 어떤 식으로든 그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품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한 반응까지 모두 그 시대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 한국 대중문화와 K-팝은 내용과 현상 양면에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현시대가 갖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예를 들면 밀레니얼 세대에서 Z 세대로 넘어가는 사이의 청년들이 성공을 열망하며 인종 투쟁을 치르고,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 강력한 팬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팬덤과 함께 성장하면서 세상에 보다 나은 일을 하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이 시대상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앨범은 그 기록이기도 하고요. 물론 다른 나라의 콘텐츠들 또한 그렇지만, 한국 대중문화는 내용과 현상 양면에서 이 시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스트레이 키즈, 美 ‘MTV VMAs’ 첫 출연...‘특’ 퍼포먼스

다음달 12일 뉴저지 푸르덴셜 센터...K팝 부문 후보



대세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스키즈)가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이하 뉴시스

‘MTV VMAs’)에 처음 출연한다.

23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는 오는 9월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푸르덴셜 센터에서 열리는 ‘2023 MTV VMAs’에서 퍼포먼스를 펼친다.

지난 6월 발표한 정규 3집 ‘★★★★(5-STAR)’(파이브스타) 타이틀곡 ‘특’을 미국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공개한다. 스트레이 키즈는 ‘파이브 스타’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세 번째 1위를 차지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올해 ‘MTV VMAs’에서 ‘특’으로 ‘베스트 K팝’ 부문 후보에 올랐다. 이번 ‘베스트 K팝’ 부문 후보로는 스트레이 키즈 ‘특’ 외에 블랙핑크 ‘핑크 베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슈가 러시 라이드’, 에스파 ‘걸스’,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세븐틴 ‘손오공’ 등이 지목됐다.

블랙핑크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K팝 부문을 포함 각각 4개와 2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 악뮤, ‘러브 리’ 이틀째 음원차트 1위 “굉장히 고민해 만든 노래”

남매 듀오 ‘악뮤(AKMU)’의 신곡 ‘러브 리(Love Lee)’가 화제다.

2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악뮤의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2년 만의 컴백임에도 이찬혁과 이수현의 변함없는 케미스트리를 엿볼 수 있는 영상이다. 두 사람은 줄곧 밝은 표정으로 활영을 화기애애하게 이끌며 기분 좋은 에너지로 현장을 가득 채웠다.

특히 새롭게 선보인 콘셉트가 눈길을 모았다. 이수현은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여러 스타 일링에 많이 도전해보는 것 같다. 데뷔 초창기

를 추억하면서도 지금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스러움을 보여드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촬영장 소개에 나섰다. 마치 동화 속을 연상케 하는 핑크빛 세트장, 과녁, 공룡 피규어, 구름 등 각종 오브제들이 사랑스러움을 배가하는 가운데, 이수현은 장난스럽게 화살을 쏘며 큐피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 웃음을 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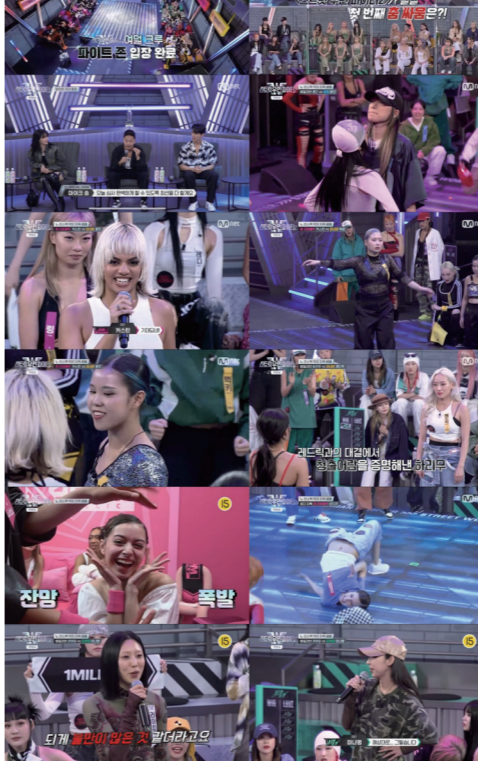
2016년 이후 약 7년 만에 선보이는 퍼포먼스 역시 관객 포인트다. 두 사람은 재기발랄한



매력으로 무장해 손을 활용한 포인트 안무 연습에 돌입했다. 이찬혁은 곡에 분위기에 맞는 귀여운 표정 연기를 선보였다.

## ‘스우파2’ 첫방부터 불꽃 튀는 경쟁 ‘시작’

최고 시청률 3.2% 기록



글로벌로 판을 키운 Mnet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2’ 첫 방송이 베일을 벗었다.

23일 시청률 조사기관 AGB닐슨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Mnet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2’(이하, ‘스우파2’)는 수도권 유료 가구 기준 최고 시청률 3.2%를 기록했다. OTT 플랫폼 ‘티빙’에서는 실시간 점유율 87.9%를 기록했다.

첫 방송은 글로벌 춤 서열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모인 8크루의 첫 만남으로 시작했다. 수많은 기획사의 K팝 안무 기획을 책임지고 있는 히트 안무가 크루 원밀리언(MILLION)과 예소 카이·NCT·에스파 등과 협업한 바다가 이끄는 영 제너레이션 크루 베베(BEBE), 박재범·제시·레드벨벳·트와이스까지 다양한 스타 일의 안무 메이커 미나명이 리더로 있는 팀엔

담(DEEP N DAP), 세계를 평정한 월드와이드 어벤저스 크루 레퍼블릭(JAM REPUBLIC), 15년 차 국내 유일 최장수 여성 힙합 크루 레디바운스(LADYBOUNCE)이 나섰다.

아울러 ‘댄싱9’의 출신 왕진 댄서 핑키와 이·윤리·약시 등이 소속된 실력파 크루 마네퀸(MANNEQUEEN), 일본을 대표하는 안무가 아카넨, 사야카가 이끄는 츠바킬(TSUBAKILL), 최강 배틀러들이 뭉친 오리지널 스피릿 힙합 크루 울프러(WOLF)까지 8크루가 파이트 존에 입성해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노 리스펙’ 약자 지목 배틀로 본격적으로 경쟁의 막이 올랐다. 첫 번째 순서로 원밀리언의 조희수 퀸 레디가 최근 주가 급상승 중인 베베의 리더 바다를 ‘노 리스펙’ 댄서로 지목했다. 두 사람 과거 같은 크루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레디가 먼저 패기 있게 선공에 나섰다. 음악에 맞는 여유로운 무브를 보여준 바다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저지 3인방 모두 바다의 손을 들어주며 바다의 완승으로 돌아갔다.

레전드급 빅매치에선 리아킴이 미나명을 베를 상대로 지목했다. 이 과정에서 원밀리언과 팀엔담의 숨겨진 관계가 공개됐다. 리더 미나명을 포함해 팀엔담 3명의 크루원이 원밀리언 출신의 댄서들로, 사실상 구 원밀리언과 현 원밀리언의 싸움이었던 셈이다. 과연 리아킴과 미나명 중 과연 어느 쪽이 승기를 가져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종 우승 크루를 가리게 될 크루 퍼포먼스 비디오 평가도 이날 방송과 동시에 시작했다. 투표 기간은 파인별 생방송 당일까지로, 공식 유튜브 채널 더 춤(The CHOOM)과 엠넷 플러스를 통해 결과 집계될 예정이다. Mnet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2’는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